

논단

# 의학사서제의 전문성 확보와 발전을 기대하며

글 · 전혜영<sup>1)</sup>



- 목 차 -

1. 의학사서제의 도입 배경
2. 해외 의학사서자격 사례
3. 우리나라 의학사서제의 문제점과 과제
4. 맺으면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이하 의도협)는 의학 분야 정보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학사서 자격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의학사서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전문성에 취약한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 개선의 신호탄으로서 구체적 자격 기준과 인정 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은 앞으로 사서자격제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딛는 의학사서제는 사서직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전문사서 자격제도로 자리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재 자격 인정에서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전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아대학교도서관 의학도서관, hyjeon@dau.ac.kr



## 1. 의학사서제의 도입 배경

의학사서제에 대한 첫 논의는 2001년 제1회 의학도서관장회의에서 행정순환보직제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운영상의 문제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의도협은 의학전문사서 교육과정 개설 등을 연구하기로 하고,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의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을 시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순환 보직되지 않도록 협의회장의 이름으로 대학 당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의학사서가 유지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그 이후 추계학술대회와 학술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대한 연구 발표와 논의를 거듭하여 의학사서 자격규정(안)과 시행세칙(안)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2006년 이를 심의·공표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의학 전문 정보서비스를 저해하는 국공립대학 의학도서관의 행정순환보직문제를 개선하려는 의도였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의 의학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병원도서관의 사서직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 반영은 이 제도 본래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가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해외 의학사서자격 사례

의도협은 미국과 일본의 보건 의학분야 정보서비스 담당자를 위한 전문 자격 제도를 벤치마킹하였다. 일본은 사서자격증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사서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서관협회에서 공인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MLS)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Academy of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의 자격 요건이다. 일본과 미국 모두 경력과 업적에 따라 자격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석사학위가 전제되므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서자격제도를 가진 일본보다 더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참조

Annals of Internal Medicine 편집장인 Frank Davidoff와 미국의과대학협의회의 Valerie Florance는 현재의 의학사서보다 임상과 정보 지식을 함께 가진 정보전문가(Informationist)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가적으로 자격 관리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Davidoff & Florance, 2000). 미국의 학도서관협회에서도 이를 공식화하고 여러가지 과정과 논의를 지원하고 있는데 Informationist는 문헌정보학적 배경보다는 의학적 지식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우려도 있으나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정보서비스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1〉 미국, 일본, 한국의 의학사서자격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이름	의학사서		Health Science 情報専門員 (JHIP)		Academy of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	
주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日本医学図書館協会		Medical Library Association	
목적	의학사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계속 교육과 전문 활동을 통하여 의학사서 자질유지 발전		협회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건, 의료정보의 전문적 지식, 기능관리, 조정능력을 가진 의학도서관원 양성 촉진		보건 정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개발과 직업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임	
도입연도	2006년		2004년		1989년 <sup>2)</sup>	
자격종류	단일	사서자격증 + 점수 60점 이상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이면 의학사서 평점 20점 취득)	초급	사서자격증 실무경력 3년 이상 과거 3년간 30점 이상 협회주관 연수 1회 이상	임사*	석사학위 주요영역별 지식 계속교육 최소 8점
			중급	사서자격증 실무경력 5년 이상 과거 5년간 70점 이상	일반	석사학위 주요영역별 지식 실무경력 5년 과거 5년간 50점
			초급	사서자격증 실무경력 10년 이상 과거 5년간 100점 이상	선임**	석사학위 주요영역별 지식 실무경력 5년 과거 5년간 80점
					최고***	석사학위 주요영역별 지식 실무경력 10년 과거 5년간 120점
명예	퇴직자로서 임사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점수와는 무관함.					
갱신주기	3년		5년(중급, 상급에 한함)		5년(일반회원 이상)	
신청료	유료		유료		유료	
자격인정 점수영역	교육 실무경력 학협회 활동 출판사항 지정학점		계속교육 업적교육활동(계속교육강의 등) 업적출판활동 업적회의(학회, 연구회) 참가 업적전문학회활동 참여 보건과학분야도서관 실무경력 기타		계속교육 개인별 업적 컨퍼런스 활동 전문협회 활동 기타 전문 활동	
주요영역	출판, 교육		출판, 회의 참가, 업적 교육		개인별 업적(특히 출판), 교육, 전문협회 활동	
제출서류	자격심사 신청서 사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및 학점 취득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인정자격신청서 점수신고서 재직증명서 사서자격증명서 신고점수증명서류 인정심사로 송금영수증 사본		임사 <sup>3)</sup>	Form BIO, Form SRP-1,2,3 + Form KNO 비문헌정보학석사
					일반	Form BIO, LEDGER <sup>4)</sup> + Form KNO 비문헌정보학석사
					명예	Form EMERITUS (퇴직자용 서식)

\* Provisional Member    \*\* Senior Member    \*\*\* Distinguished Member

2) 1949년 credentialing program을 시작, 여러 번의 규정 개정을 하여 1989년에 현재의 제도로 완전 개편하였음.

(<http://www.mlanet.org/academy/acadfaq.html>)

3) Form BIO(Biography), Form SRP(Self-Review & Plan), Form KNO(essential areas of knowledge)

4) Form LEDGER: 개인별 업적 점수표

### 3. 우리나라 의학사서제의 문제점과 과제

이 번에 시행된 우리나라 의학사서제의 취지는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학사서의 자질 향상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의 열악한 현황이나 제한적인 계속 교육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 평가 항목의 전문성이 약화되면서 다소 모호하게 구성되었다. 특히 시행에 앞서 의도협 회원은 물론이고 의학계와 도서관계의 공개적 의견 수렴 과정과 사전 평가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의학사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자격제도는 문서로만 남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도협은 의학사서제가 의학도서관 사서들의 계속 교육이나 협회 활동 참여에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협의 메아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학사서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자격 제도일 때 비로소 의의를 갖는다. 의학사서라는 자격만 있고 전문 지식과 정보서비스 능력이 그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의학 사서직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게 되므로 신중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격종류를 구분하고 출판이나 개인별 업적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한 것은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도협의 의학사서 자격심사 평가 항목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목적에 충실하자.

- 전문성 개발과 유지 목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 사서자격종류, 학력, 경력을 고려하여 자격을 최소한 2가지 이상으로 구분한다.
- 갱신 주기와 갱신에 필요한 점수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 (2) 교육

- 의도협 주관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 의도협 주관 교육과 도서관 관련 단체 교육의 점수 배점을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을 하더라도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다.
-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sup>5)</sup>
- 용어 중심 교육 이의 정보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도서관 관련 단체 교육이나 의과대학과 협력도 가능).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구분하고 점수 배점을 다르게 한다.
- 사서가 강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증가시킨다.
- 학위에 대한 배점을 높인다(전문성에 필요한 요건).
- 평가 대상 기간이 정해져야 된다(예: 최근 몇 년으로 제한할 것인지, 소급 누적할 것인지).

#### (3) 실무 경력

- 사서자격에 따른 배점 차등에 대한 보완 필요  
(예: 사서자격 항목을 신설하여 자격 종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경력 년수에 따른 차등은 하지 않는다.)
- 실무 적용 기간을 명시한다(현재는 최고 점수만 명시되어 있음).
- 실무 업적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한다(예: 이용자교육, 연구기금, 수상 등).

5) 평가항목 중 도서관관련단체의 문헌정보 및 관련과목(2점/학점)은 학점은행제를 염두에 두고 포함시켰는데 아직 이 항목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세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위과정에서 받은 학점으로 혼동되거나 '도서관관련단체의 교육'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마지막 평가 항목인 지정학점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다.

(4) 학협회활동

- 의도협 활동 배점을 상향 조정(특히 임원/위원회 활동)
- 활동 범위를 다양화(예: Online Forum 개설, Q&A 참여 등)
- 포상은 실무 경력 항목으로 옮긴다.

(5) 출판사항

- 배점 상향 조정 필요(전문성 관련)
- 자료 유형과 저술 내용에 따른 구분 고려(예: 학술지와 잡지, article과 review 등)
- 학회지 그룹을 나누어 배점 조정(예: 등재학술지, 등재 후보학술지, 일반)
- 도서의 경우 창작서와 번역서를 구분할 것인지 논의 필요

(6) 지정학점

- 개별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육 항목에 포함시킨다.
- 해당 과목을 개설하는 기관을 매 학기 마다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7) 평가시험

- 기출 문제 공개(전문성 관련)

4. 맺으면서

이 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 사서 자격제도로써 처음 시행된 의학사서제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제도는 의학 분야 전문 사서를 기대하는 현장의 요구와 대학 의학도서관의 순환 보직 문제와 병원 도서관의 열악한 사서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어떤 제도이든지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얼마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의도협은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 회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학사서 정착을 위해서는 의학계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 기회에 의학 관련 단체와 공식 협력 관계를 맺고 의학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학사서에 대한 지원과 그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여 모범적 전문 사서제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도 의학사서제에 관심을 갖고 현재의 사서자격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수정. 2003. 의학주제전문사서제도의 도입과 그 전망. 『한국의학도서관』, 30(1,2): 27-32.

이영철. 2006. 의학사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Medical Librarian, 8(1): 24-28.

日本医学図書館協会. “認定資格「ヘルスサイエンス情報専門員.” [online]. [http://wwwsoc.nii.ac.jp/jmla/nintei/shinsei\\_tebiki.html](http://wwwsoc.nii.ac.jp/jmla/nintei/shinsei_tebiki.html)[cited 2006. 11.2].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http://www.kmla.or.kr/>.

제1회 의학도서관장회의 회의록. 2002. Medical Librarian, 4(1): 12-14.

Davidoff, Frank and Valerie Florance. 2000.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2(12): 996-998.

MLA. “The Academy of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 [online]. <http://www.mlanet.org/academy>[cited 2006. 11. 2.].